

# 역사·관광·문화 '삼합' 매력... '흑산도아가씨' 반기네



상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흑산도 일주도로와 흑산도항 경관. 여수 거문도와 함께 전남 섬 관광의 핵심이콘인 흑산도는 매년 3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 '블루오션' 다도해 <35>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신안편-흑산도<상>



흑산도는 여수 거문도와 함께 언제나 꼭 한 번쯤 가봐야 하는 전남 섬의 핵심 아이콘이다. 목포여객 선터미널에서 92.7km 거리에서 있어 2시간 남짓 바다를 지나야 하는 이 섬은 천연기념물 제170호인 홍도,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자리한 가거도, 케이블 TV 프로그램 촬영지로 명성을 얻은 만재도를 가는 길목이 되기도 한다. 흑산도 주변에는 이외에도 영산도, 대둔도, 소장도, 대장도, 상·중·하태도 등 유인도 11개, 무인도 285개 등 무려 296개의 다양한 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흑산면사무소에 속한 섬의 인구는 모두 4396명(2425가구)으로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파시(波市)로 들쭉이던 1만2000명의 인구를 자랑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흑산도를 가는 길은 녹록하지 않지만,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다. 평일인 지난 10월 6일 오후 1시 10분 출발하는 남해권호 안에는 여행객에 오를 50~60대로 보이는 여객 동창, 동네 주민, 70대 이상 고령자들과 주민들로 가득했다. 위생봉투가 비치돼 있고, 커다란 쓰레기통이 좌석 복도 여기저기에 놓여 있다. 가까운 바다에 해당하는 비금도에서 승객의 3분의 2가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바닷길이 시작된다.

다행히 이날 먼 바다는 잔잔했다. 승객 대부분이 울렁거림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흑산도에 거의 다다르자 승객 중 일부가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를 부르며 들뜬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도착한 흑산도여객터미널에서는 이미지의 '흑산도아가씨'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고, 관광버스와 중형버스 등이 즐비하게 늘어선 있었다. 여느 물의 유명 관광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취재진을 태운 남해권호는 다시 가거도, 만재도를 들렀다가 흑산도로 돌아와 목포로 향한다.

마중을 나온 김정태(51) 면장은 "신안군 공무원이면 누구나 겪었을 섬 근무에 아꼈지만, 흑산도의 경험은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혀를 내둘렀다. 암태도, 임자도, 비금도 등에서 근무한 그는 최근 인사에서 승진한 후 흑산도로 '날라'왔다. 겨울에는 번덕을 부리는 날씨 탓에 바다만 바라본다는 이곳에서 그는 몇 년을 더 있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것이 더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후배들이 일단 흑산도에 들어오면 언제 나갈 지 몰라 흑산도행을 매우 싫어한다"며 "전철입 기준이나 기간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장도 해발 180~200m에 습지

신석기 패총·멸치잡이 노래 가거도

삼시세끼 촬영으로 명성얻은 만재도



이미지의 '흑산도아가씨'는 흑산도에 도착하면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다. 사진은 흑산도아가씨 노래비로 바로 옆에 이미지의 핸드 프린팅이 있다.

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은 없는데 부족한 것은 많은 탓에 자주 돌아다니며 주민들 만나는 것도 꺼려진다"고 하소연했다.

흑산도 안내는 흑산도 출신이자 '마니아'인 최한웅(49·6급) 부면장이 맡았다. 그는 흑산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난 1992년 공직에 입문한 뒤 23년 중 14년을 흑산도와 부속 도서인 하태도, 가거도에서 근무했다. 취재진에게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흑산도 관련 자료를 가지런히 모아 전달하며 그는 "고대



흑산도가 과거 고대해상문화의 거점이었다는 점은 섬 곳곳의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문화예술재단 산하 전남문화재연구소가 무심사지 유적지를 발굴조사중이다.

연제부터인지도 모르는 흑산도의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지지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그의 자료는 흑산도 개관, 연혁, 기본현황, 마을 소개, 문화재, 전설, 희귀 동·식물, 해수욕장, 낚시터, 특산물, 역사적 인물, 천혜의 보고, 고도 흑산도, 신비의 섬 홍도 등 모두 14개 단락으로 구성돼 있다. 최 부면장의 양해를 얻어 우선 이 '귀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자 한다.

흑산도의 마을은 진리(眞里), 에리(曳里), 비리(此里), 심리(深里), 사리(沙里), 오리(梧里), 수리(水里) 등 본도와 영산도, 다물도, 홍도, 태도, 가거도, 만재도 등으로 나뉜다. 흑산도 본도의 마을 이름은 자연 마을을 합친 명칭이지만, 그 지리와 위치적 특징을 담고 있고, 따라서 특산물이나 주민들의 삶 역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진리는 면소재지이자 행정의 중심, 에리는 산줄기가 바다 속으로 끌고 들어온 목이 되는 자리, 비리는 진리의 산너머 위치, 심리는 바다가 깊숙이 들어와 굽어져 있는 모습, 사리는 모래 등에서 그 이름이 비롯됐다.

영산도는 영산화가 많이 피어서, 다물도는 해산물이 많아서, 홍도는 석양의 붉은 바다가 섬 전체를 물들인다고 해서 각각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다. 태

도는 섬과 바다가 한 데 어울려 푸르게 보이고, 가거도는 사람이 가히 살만하며, 만재도는 재물을 가득 담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 제170호인 홍도는 관문인 '남문', 도승바위, 병풍바위 등 33개의 비경을 가지고 있으며, 전남 무형문화재 제22호인 멸치잡이 노래로 유명한 가거도는 신안에서 가장 높은 독실산(639m)과 신석기에 형성된 패총을 갖고 있다. 대장도와 소장도로 이루어진 장도에는 해발 180~200m 분지에 면적 9만414㎡의 대규모 습지가 조성돼 있다.

특산물로는 흑산 홍어, 전복, 가리비, 우럭, 성게, 돌김 등이, 흑산도와 연관이 있는 역사적 인물로는 자산어보의 정약전, 면암 최익현, 김이수 등이 있다. 정약전과 최익현은 흑산도에 유배를 외 인연을 맺었고, 김이수는 흑산도 주민들에게 부과된 다나 무 세금의 부담함을 정조에게 직접 격쟁(임금 행차에 정이나 행과리를 치면서 민원을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알려 시정한 흑산도 사람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방수 | 전천후시공성 | 절연방식시공 | 내구성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시공후: **그린인베리아**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